

# 통일신보

무소속대변지

제5호 [루계 제2631호]

주제 110  
(2021)년 1월  
30일  
토요일  
음력 12월 18일

절세위인의 향도 따라 삼천리

강토우에 존엄높고 부강번영하는

통일강국을 일떠세우자!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축하하여 총련조직과 단체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제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청년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제일본조선인민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체육련합회 상임리사회, 제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학회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학생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평화동맹위원회, 제일본조선인민친선회 중앙상임리사회를 비롯한 총련의 중앙단체들, 조선신보사, 조선통신사, 학우서방, 금강산가극단, 동해상사주식회사, 금강보험주식회사, 조일경제교류축전회 등 사업체들 그리고 총련의 각 지방본부들, 조선대학교와 각급 제일조선학교들에서 축전들을 드리었다.

축전들은 영광스러운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적전진을 위하여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조국의 전체 당원

들과 인민들의 뜨거운 열망속에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다함없는 흠모와 열화같은 충성의 한마음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광과 가장 열렬한 축하를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게 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온 주체혁명위업은 그 어떤 시련도 과감히 뚫고 더욱 역세게 전진할 수 있게 되었으며 그 길위에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도 개척되리라고 굳게 확신한다고 축전들은 지적하였다.

축전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을 혁명의 수위에 높이 모시고 살며 투쟁하여온 격동적인 나날들을 통하여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주체혁명의 탁월한 령도자이시고 우리 공화국의 강대국의 상징이시며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따르는 길에 모든 행복과 찬찬한 미래가 있다는 철리를 가슴깊이 새기고있다고 밝혔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방향과 목표에 따라 새로운 발전과 번영

에로의 진군이 개시되는 위대한 전환의 해, 투쟁의 해인 올해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 사상의 일치를 애국애족의 성세, 믿음직한 성들로 반석같이 다지며 제일조선인민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당겨 열어나갈 불같은 결의에 총만되어있다고 축전들은 언급하였다.

축전들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이역에 사는 위대한 우리 인민으로 더 뜨겁게 끌어안을것이라고 확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해같은 은정에 크나큰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새겨안고 총련을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혁명조직,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의수, 강위력한 해외전투부대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으로써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기어 총성의 보고를 삼가 올릴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축전들은 주체혁명위업과 총련에 국위업을 승리적전진과 찬찬한 미래를 위하여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부디 옥체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였다.

본사기자

##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 여러 나라 인사들 격찬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을 더 높이 들고 밝히는 새 승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비약하는 조선로동당의 불패의 령도력은 세계 여러 나라 각계 인사들의 경탄을 자아내고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을 열렬히 축하하여 여러 나라의 정당지도자들과 각계 인사들이 보내어온 축전과 축하편지들에 그대로 반영되어있다.

단마르크의 공산당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소식에 접한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그이께서 가장 열렬한 축하의 인사를 삼가 드리고있다.

김정은동지는 조선혁명의 최고수뇌이시며 단결의 중심이시다. 그이께서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밑에 조선혁명을 승리로 이끄시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조선인민의 안전과 미래를 굳건히 수호해나가실것이다.

새유고슬라비아공산당 중앙위원회 총비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조선인민이 당의 두리에 하나로 굳게 단결되어있다는것을 보여주는 뚜렷한 증시이다.

또한 그이에 대한 조선인민과 조선로동당원들의 신뢰와 지지, 믿음의 분출이기도 하다.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로동당은 새롭고 보다 큰 승리를 이룩할것이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것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혁명적인민들에게 있어서 커다란 영광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인민민주주의정치를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리상과 지향을 절대적 기준으로 하여 로선과 정책을 수립하시고 인민의 리익과 편의를 우선시하는 원칙에서 모든 시책을 실시해나가도록 하신다.

그이께서는 오로지 인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하여 위험천만한 최전선시찰길에도 오르고 건설장의 험한 길도 걸고계신다.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조선인민은 주체위업을 빛나게 완성할것이다.

남아프리카 김일성-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조선

로동당 제8차대회에 즈음하여 보내온 축전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당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의 새로운 승리적전진을 이룩하려는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조선인민의 한결같은 의사와 념원을 반영하여 당 제8차대회는 김정은동지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하였다.

이것은 결승하는 도전과 시련속에서도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뭉쳐 새로운 투쟁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조선로동당의 전투적위력을 과시한 력사적사변이다.

김정은동지께서 령도하시는 사회주의조선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스페리에주체사상연구소 조책임자는 이렇게 강조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혁명발전의 중요한 시기에 당과 인민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로선들을 제시하였다.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의 리념이 당대회에서 특별히 천명되었다.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된 조선인민은 자기의 힘으로 사회주의건설의 새 승리를 안아올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련락위원회 서기장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는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들고나가는 조

선혁명가들의 불굴의 의지를 과시한 대회였다. 당대회가 제시한 로선은 전체 조선로동당원들과 조선인민을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도록 고무하고 미래에 대한 커다란 희망을 안겨주었다고 격찬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하여 조선로동당의 위대성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브라질집권정치연구소터 위원장은 이번 당대회는 김일성주의와 김정일주의의 혁명사상의 정당성을 더욱 뚜렷이 확증하였으며 주체의 사회주의길로 곧바로 나아가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의지를 다시금 과시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공산당령엔-쏘련공산당 중앙리사회 비서는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김일성주의와 위대한 김정일주의의 혁명위업의 훌륭한 계승자이다.

그이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강국건설의 새로운 봉우리들을 점령하였으며 이것은 인민조선의 영웅적전진기에 영원히 빛날것이다.

김정은동지를 총비서로 높이 모신 조선로동당은 당 제8차대회 결정판에 펼쳐나선 조선인민을 새로운 승리로 향도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 조국소식

### 개건현대화된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 준공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열린 진로따라 온 나라가 새로운 혁명적대진군으로 들끓는 속에 현대적으로 개건된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이 준공되었다.

연 1만 3 200여㎡의 건축면적에 여러 생산현장과 통합지령실, 기술발전실, 과학기술보급실 등을 갖춘 전자의료기구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의료기구공업을 더욱 발전시킬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보건부분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는데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는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을 개건현대화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인민들의 생명과 건강증진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아끼지 않는 조선로동당의 뜻을 받들고 만경대구역에서는 즉시 핵심당원들로 건설력량을 편성하여 공사를 드세게 밀고나갔으며 구역의 기관, 기업소, 공장일군들도 현장에 달려나와 애국의 구슬땀을 바치였다.

보건성에서 강재와 세멘트, 인발판을 비롯한 100여종의 자재들을 책임적으로 보장하여 건설을 적극 추동함으로써 평양전자의료기구공장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개건되었다.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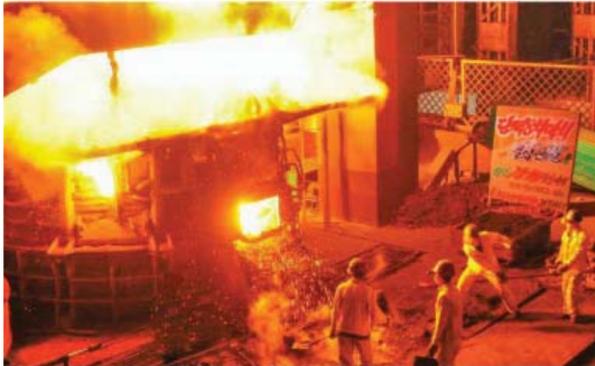
교원, 연구사들도 통합생산체계, 태양빛발전체계 등을 완성하고 전자의료기구의 개발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다.

공장에는 고순도중류수기, 전자위대시경, 수자식렌트렌진단장치, 자기공명화상진단장치를 비롯한 전기 및 전자의료기구들의 생산과 조립을 공정별로 전문화할수 있는 설비들이 그치지 갖추어져있으며 정보기술봉사, 편의봉사, 기술건설을 위한 조건도 구비되어 있다.

지붕위에 설치된 태양빛 전지판과 태양열물가열기, 아담하게 꾸러진 휴식터 등도 원가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꾸러진 공장의 면모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우리의 전자의료기구들을 더 많이 생산보장함으로써 사회주의보건을 발전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할 열의에 넘쳐 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하신 보고에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기본중자, 주제는 여전히 자력갱생, 자급자족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 사회주의건설의 절박한 요구로부터 새로운 전망계획기간의 자력갱생은 국가적인 자력갱생, 계획적인 자력갱생, 과학적인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한다고 하시였다.

남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직 자기 힘을 믿고 자력의 힘으로 온갖 난관을 물리치고 살아가는것이 자력갱생이다. 돌이켜보면 자력갱생은 공화국의 발전행로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왔다.

자력갱생하면 제일먼저 떠오르는것이 항일무장투쟁시기에 창조된 연결폭탄정신

## 번영의 보검-자력갱생

이다.

1930년대 초 유격근거지들에 꾸러진 병기창들에서는 권총과 보총을 비롯한 총도 수리하고 화약을 제조하여 작탄도 만들어냈다. 항일선열들이 백두의 설한봉에서 마려한 자력갱생의 불씨는 해방후 새 민주조선건설의 봉화로 타올랐고 동방의 한결에서 전설의 천리마를 날게 한 원동력으로 되었다. 서평양철도공정(당시)에서 만들어진 첫 전기기관차의 발진행로에서 언제나 투쟁의 기치가 되고 비약의 원동력으로 되어왔다.

모든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지난 고난의 행군시기에도 자기 힘으로 중소형발전소들을 일떠세우고 공장들을 돌리였으며 강위력한 국방력을 다져놓은 공화국인민이다.

지난해 공화국에서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뜻있게 맞이하기 위한 80일전투가 빛나게 계속되었다.

김책체첵련합기업소와 황해체첵련합기업소의 로동자들은 선철, 강철생산목표를 수행하였으며 탄전들과 철도 운수부문, 기계공업, 채취공업, 경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분의 많은 단위들에서도 성과가 이룩되었다.

전세계를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는 악성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자신과 가정, 국가를 지키기 위한 비상방역, 련이어 입은 자연재해를 가시기 위한 피해복구전을 치르는 속에서 이룩한 성과들이다.

그 모든 기적과 승리를 안아온 근본비결은 자기의 힘과 지혜, 자기의 자원으로 자력부강, 자력번영을 이룩하려는 전체 인민의 불굴의 정신력과 과감한 투쟁에 있다.

자강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전인민적 투쟁속에서 자력갱생은 오늘 주체조선의 국몽은

로, 유일무이한 투쟁정신으로 더욱 공고화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 우리 인민은 력사가 일찌기 알지 못하는 장기적인 가혹한 환경속에서 자제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 적과 난관을 이기는 법, 자기의 존엄과 권리를 지키는 법을 배웠다고 하시면서 허리띠를 풀라메더라도 기어 자력부강, 자력번영하여 나라의 존엄을 지키고 제국주의를 타승하겠다는것이 우리의 역센 혁명신념이라고 하시였다.

자력갱생이라는 번영의 보검이 있어 공화국인민은 시련과 난관이 겹쌓여도 주저나 담보를 모르고 앞으로만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밝아온 이해에도 신심과 락관에 넘쳐 더 큰 승리를 내다보고있다.

주영현

# 백승의 항도 따라 조선은 나아간다

역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판철을 위해 온 나라는 지금 신심과 용기들이 새로운 승리를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공화국의 역사에 큰 자욱을 새긴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는 지난 5년간의 사업을 정확히 분석총화하고 조성된 새로운 환경과 혁명정세에 필적하여 당과 국가발전사업의 전진방향을 뚜렷히 밝혀냈다.

대회에서는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수 있는 든든한 토대를 구축할데 대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방향이 제시되었으며 그 중심과업과 목표, 주요경제부문별 정비발전방

향,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과업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가방위력을 새로운 발전의 캐두에 올려세우기 위한 중핵적인 구상과 과업, 과학기술발전의 활로를 확신있게 열어나갈데 대한 과업, 사회주의문화의 새로운 개화를 열어나가는 데서 나서는 목표와 그 수행방도,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대외관계발전을 위한 원칙적문제, 당사업의 강화발전을 위한 과업들이 명백히 밝혀졌다.

이번 당대회를 통하여 공화국 인민들은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새로운 승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방략들에 기초하여 곧바로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하기에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새 목표수행을 위해 힘껏 일해 나가겠다》, 《모든 부분의 사업을 심오하게 분석총화하고 우리의 전진을 위한 명백한 리정표를 세웠으니 더욱 힘차게 나아갈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어떻게 고마움의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다. 그의 영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그에게 승리의 보고를 드리겠다》며 자기들의 흥분된 심정을 저마다 토로하고있다.

나라의 발전과 부흥은 세월이 흐른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이 발전하고 부흥하려면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요구를 예리하게 통찰하고 정확한 결단과 올바른 전략전술을 제시

하여 승리로 이끌어줄 탁월한 령도자를 모셔야 한다.

이 행성을 둘러보면 조성된 대내외정세와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흐름을 예리하게 통찰하고 그에 맞는 올바른 전략전술과 로선을 제시하는 국가지도자를 만나지 못하여 자기 발전의 곧바른 길을 걸지 못하는 나라들을 수없이 찾아볼수 있다.

공화국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통하여 자기들이 얼마나 위대한 령도자를 모시고있는가를 다시금 뼈부로 절감하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비범한 사상리론적재지와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력으로 공화국을 승리의 한길로 이끄시는 위대한 령도자이다.

그이께서는 정치와 군사, 경제와 문화예술, 보건과 체육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 걸쳐 해박한 식견을 가지고계시며 변천하는 시대의 요구와 흐름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매 시기마다 국가와 인민을 위한 올바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어 공화국이 사소한 답보나 침체도 모르고 곧바른 길로 나아갈수 있도록 현명하게 이끌어주신다.

지금도 사람들은 2013년 3월을 잊지 못하고있다.

당시 적대세력들은 반공화국고립압살책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악랄하게 벌리었으며 그로 하여 나라의 정세는 전쟁전야의 엄중한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조성된 정세와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에 맞게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키는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 로선을 제시하시었다.

병진로선이 제시된 때로부터 4년만에 공화국에서는 핵무력완성의 력사적대업이 이룩되었다.

너무도 짧은 기간에 이룩된 이 력사적대업은 위협천만한 시험사격장으로 깊은 밤에도 이른 새벽에도 나가시고 파도치는 바다물속에 서슴없이 들어서시며 화력진지로 나아가신 그의 불같은 헌신과 현명한 령도가 안아온 고귀한 결실이다.

경제건설분야에서도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어 생산의 동음을 높이 울리게 되었으며 자기 지방, 자기 공장을 대표하는 명제품, 명상품들이 늘어나 날로 성장하는 공화국의 경제력을 시위하였다.

그이께서는 나라의 경제를 하루빨리 추켜세우시기 위하여 중외의들에서 그 실현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고 그 수행에 온 나라 인민들을 불러일으키시었다.

나라 정면돌파전을 벌려야 한다는 것, 사회주의건설의 전진도상에 가로놓인 난관을 오직 자력경쟁의 힘으로 정면돌파해야 한다는 사상과 정신을 인민의 심장마다에 심어주시었다.

변화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새로운 로선과 전술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그 실현을 위한 전인민적인 창조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년초부터 한해가 저무는 연말까지 공장, 기업소, 건설현장들을 찾았으시어 새로운 기적과 위훈창조의 묘술도 안겨주시고 자체로 생산을 활성화해나갈수 있는 방법도 가르쳐주시며 온 나라에 자력경쟁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도록 이끄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계속되는 적대세력의 제압압살책동과 뜻하지 않은 도전과 난관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곧바로 전진의 길을 걸어올수 있는 것이다.

지금 공화국의 인민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자기 부분의 과업과 방도들을 깊이 연구하고있으며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수행에서 영예로운 승리가 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시작부터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자기 사업에 달라붙고있다.

혁명의 먼 앞날까지 내다보시고 현명한 가르침을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는 과학이고 승리이다. 그이께서 획기적인 투쟁로선과 방략을 제시하시어 그때마다 공화국은 크게 전진하고 승리를 떨쳐왔다.

사회주의건설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올바른 전략전술과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가 있어 공화국은 사회주의건설의 주체적립, 내적동력을 비상히 증대시켜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새 승리를 이룩하고야말 것이다.

본사기자 주 일 봉



경제발전의 획기적전진을 가져 오시려 자강력제일주의기치를 높이 들도록 하시고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에서 자력자강의 정신으로 과학기술을 틀어쥐고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를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과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자력자강의 위대한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강국건설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는데 대하여 밝혀주시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전원회의에서는 경제건설에 총력을 집중할데 대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시면서 나라를 지속적으로, 전망적으로 발전시키자면 자력적인 성과보다도 과학과 교육을 중시하고 그 발전에 힘을 넣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5차전원회의에서는 정세가 좋아지기를 앉아서 기다릴것이 아

수물놀이장에도 력력히 새겨졌다.

어찌 이뿐이랴. 공장을 하나 개건하여도 시대의 본보기가 되게,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21세기의 리상거리가 되게 모든 창조물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진정 오늘날 세계에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 이 땅에서 창조되는 행복과 문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리상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 낳은 결정체인것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공화국인민은 크나큰 민족적자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갔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 인민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에서

### 숭고한 정치리념과 리상

주제106(2017)년 5월 어느날이었다. 인민생활향상을 국가활동의 최고원칙으로 내세우시고 인민의 복리증진에 늘 깊은 관심을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자리를 함께 하시고 일군들이 인민을 위하여

몇 해전 1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정숙평양제사공장을 현지지도하실 때였다.

새로 꾸민 이불생산현장을 돌아보시며 제품생산상태를 구체적으로 알아보신 그이께서는 당의 경공업정책의 운명은 중요하게 경공업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이 인민들의 마음을 사

복부할데 대하여 강조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인민대중제일주의에 대하여 다시금 말씀하시며 인민대중제일주의는 나의 정치리념이며 나의 정치는 철두철미 인민을 잘살게 하기 위한 정치이라고, 나는 모든 사색과 활동을 우리 인민

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철저히 지향시키고있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우리나라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제일강국으로, 우리 인민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인민으로 되게 하자는것이 나의 리상이라고, 온 사회가 단합되고 인민들모두가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되면 더 바랄것이 없다고 하시었다.

인민의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주 경축대행식의 그 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온다고 하시었다.

인민이 리상과 념원이 꽃필 새로운 시대.

지난해 10월 조선로동당 창건 75주 경축대행식의 그 밤에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리 인민의 리상은 위대하며 그 리상이 실현될 날은 꼭 온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 인민의 마음을 헤아리시어

는가 못 사는가 하는데 달려있다고, 인민들의 마음을 떠나 우리 당 경공업정책의 승리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고 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이 싫어하고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제품, 인민들의 기호에 맞

지 않는 제품을 생산하면 누구도 우리 당 경공업정책이 옳다고 말하지 않게 된다. 경공업공장에서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인민들의 마음에 들게 질적으로 잘 만들어야 한다고 하시었다.

본사기자

## 인민의 리상 실현을 위하여

엔제인가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무청사우에 붙인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며 저 구호가 제일 좋다고,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라고,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을 천하제일락원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게 하자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리상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며 하신 뜻깊은 말씀을 잊지 못하고있다.

리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고 일어나 세 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 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살수 있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정치적제기라고 선언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결심은 언제나 실천으로 이어졌고 그의 리상은 공화국의 뿌리는 존엄과 인민의 행복이라는 고귀한 결실을 안아왔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에 대한 다심한 사랑은 우리의 《철족》상표가 붙은 양말이 다른 나라의 상표가 붙은 양말보다 더 좋다는 말이 나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신 평양양말공장에서 어렵고 우리의 화강동공업을 기여이 세계적수준으로 올려세워야 한다고 하시며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친 평양화강동공장에서, 인민들의 웃음소리가 차넘치는 문

물놀이장에도 력력히 새겨졌다.

어찌 이뿐이랴. 공장을 하나 개건하여도 시대의 본보기가 되게, 거리를 하나 일떠세워도 21세기의 리상거리가 되게 모든 창조물들을 그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게 건설하도록 이끌어주시는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진정 오늘날 세계에 빛을 뿌리는 공화국의 존엄과 위용, 이 땅에서 창조되는 행복과 문명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리상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헌신이 낳은 결정체인것이다.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공화국인민은 크나큰 민족적자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사회주의강국건설의 위대한 리상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갔고있다.

본사기자 박 철 남

## 기념사진이 새겨주는 진리

얼마전 뜻깊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끝난 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고 진행된 기념사진촬영들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었다.

특히 각이한 장소에서 여러 날째 그리고 대회참가자들을 비롯하여 대회의 성과적보장에 공헌한 평범한 근로자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념사진 촬영에 참가함으로써 하여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을 모았다.

아직도 귀전에는 공화국의 최고대표자이시고 온 나라 인민들의 운명과 미래의 전부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리 리 걱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던 그날의 환호성이 들려오는것만 같고 눈앞에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달려하시던 그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운다고 사람들은 저마다 끊어오르는 심증을 터치고있다.

사진의 력사가 시작된 때로부터 오늘까지 긴 세월 수많은 사람들이 각이한 의미를 담은 기념사진들을 얼마나 많이 찍어왔던가.

하지만 공화국인민들이 자기 령도자를 한자리에 모시고 찍는 기념사진만큼 특이한 견인력과 커다란 의미를 담고

민사람의 심금을 울려주는 이는 일찌기 없었다.

이 나라의 남녀로소 누구나에게나 마음속깊이 간직하고있는 소원이 무엇인가 물으면 하나같이 말할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싶은것이라고.

공화국인민들이 얼마나 자기 령도자를 흠모하고 그리워하는가는 인민들이 즐겨보는 예술영화 《소원》을 보고도 잘 알수 있다.

영화는 군인가족에 솔소 조정면무대에 올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높은 평가를 받았던 독연 《소원》을 예술영화로 옮긴것이다. 어느 발전조건설에 참가한 한 군관을 그의 안해가 어버이장군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 싶었던 간절한 소원을 끝내 이루어 되는 실제한 사실을 감명깊게 형성한것으로 하여 예술영화는 관중들의 감흥을 세차게 불러일으켰다.

이렇듯 남녀로소 누구나, 그가 로동자이든 농민이든 사무원이든 군인이든 철부지 아이들까지도 모두가 절세의 위인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고싶어하고 그 기념사진을 인생의 가장 큰 영광으로,

행복으로 간직하며 자기 가정의 가보로 전해간다.

기념사진들은 절세위인들의 인민에 대한 크나큰 사랑과 믿음이 어려웠다.

돌아켜보면 이민위원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위대한 수령님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인민의 자욱을 새겨가시는 못마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어주시었던가.

엔제인가는 퍼붓는 비바속에서 어느 한 공장의 종업원들을 오래동안이나 기다려주시며 또 엔제인가는 평범한 녀병사들을 위하여 날이 저물도록 한자리에 오래도록 계시며 그들과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다.

어느 야영소를 찾으시였을 때는 자신께서 여기까지 왔다가 야영생들을 만나보고 그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가야지 그렇기 않으면 그들이 몹시 섭섭해할것이라고, 아무리 시간이 바빠도 야영생들을 만나 보고 가겠다고 하시며 귀중한 시간을 내시어 아이들을 한품에 안으시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찍어주시고 어느 한 수산사업소의 절묘창고에 들리시

여서는 물고기들이 가득차있던 물고기를 가득차있는 물고기를 바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간곡한 당부구 권에 들러오는것만 같고 영광의 그 순간을 되새겨보면 그의 따뜻한 시선이 온몸에 와닿는것만 같아 새힘이 솟아나는것만 같아 온 나라 인민들의 한결같은 심중이다.

정녕 그 한강한강의 기념사진들은 령도자와 인민이 한피줄을 잇고 사는 혼연일체, 일심단결의 가슴뜨거운 화폭들로서 조선이 무엇으로 강하고 무엇으로 승리를 떨쳐가는가를 잘 보여준다.

조선의 제일명인 일심단결은 그 무엇으로써도 깨뜨릴수 없으며 공화국은 그 힘으로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것이다. 이것이 화회와 격동의 당대회로 막을 올린 조선의 2021년 1월에 뜻깊은 기념사진들이 다시금 새겨주는 진리이다.

지금 공화국인민들은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로동당의 총비서로 높이 모신 끝없는 영광과 행복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그의 탁월한 령도를 받들어 새로운 승리를 향해 신심드높이 나아가고있다.

본사기자 유 금 주

엔제인가 송도원국제소년단 야영소를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사무청사우에 붙인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보시며 저 구호가 제일 좋다고, 우리 아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 살게 하는것이 우리 당의 투쟁목표라고, 구호 《세상에 부럼없어라!》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웃으며 하게 된다고 말씀하시었다.

공화국을 천하제일락원으로 전변시켜 인민들이 이 세상 만물을 다 누리게 하자는 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리상이고 확고한 의지이다.

지금도 사람들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며 하신 뜻깊은 말씀을 잊지 못하고있다.

리명거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그 어떤 형태의 압력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고 일어나 세 계를 향해 과감히 돌진하는

## 선물식물, 큰꽃군자란, 호접란



큰꽃군자란과 호접란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주제 107(2018)년 6월 중국 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 혁신원 원장이 올린 선물식물이다.

원장은 중국방문의 길에서 혁신원을 찾으신 그이께 자신들이 재배하는 많은 꽃들중에서 제일 진귀하고 아름다운 큰꽃군자란과 호접란을 선물로 올리기로 생각하고 정성껏 마련하여 삼가 올리었다.

본사기자

# 전민이 하나의 승결, 하나의 보복으로

두리에 인민이 굳게 단결하여 전진해온 데 있다. 인민을 위한 고생을 더없는 락으로 여기시고 멸사복무의 력정을 끝없이 이어오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는 공화국의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불패의 것으로 다진 근본원천이었다.

전체 인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고 류례없이 혹독한 시련과 난관을 인내하고 분투한 일심단결의 힘에 의하여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제일 생명으로 하는 사회주의국가체도의 우월성과 자립, 자력의 기치높이 전진하는 공화국의 기상이 힘있게 과시되었다.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책임진 송고한 사명감으로 온몸을 불태우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심원한 사색의 세계에서 인민의 보다 큰 행복이 마련될 지름길이 열리고 그이의 헌신적인 령도의 길에서 나라의 방방곡곡에 소중한 재부들과 창조물들이 수풀처럼 일떠섰다.

지난해 편이어 엄습한 자연재해를 가시고 나라의 곳곳에 2만여세대의 새 살림집들을 훌륭히 건설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는 것은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를 높이 받들고 한사람같이 떨쳐나선 전국각적인 인민사수전, 멸사복무전의 자랑찬 승리라고 할 수 있다.

사정없이 겹쳐진 대재난앞에서 강철도 녹일 뜨거운 믿음과 사랑으로 전체 인민을 산악처럼 일떠세우시고 피해복구전역에 최경에도 당원사단과 군대를 고평과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이 아니었다면 그처럼 짧은 기간에 퍼해지역이 사회주의선진국으로 변모되는 기적적인 현실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처럼 어려웠던 지난 한해 전례없이 장기화된 사상초유의 세계적인 보건위기속에서

탁월한 선견지명으로 선제적이고 공세적이며 강력한 중대조치들을 취하시어 인민의 안녕을 굳건히 지켜주시고도 오히려 우리 인민 모두가 무병무탈해주시는 정말 고맙다고 거듭 거듭 말씀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진정은 모든 사람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희망찬 새해의 1월 평양의 김일성광장을 도도히 굽이쳐간 무적의 열병대오들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리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전국각지의 군민련합대회들에서 울려 퍼진 천만사람들의 비상한 총정의 맹세와 애국의 열정은 일심단결의 위력을 보여주는 송엄한 화폭들이다.

령도자는 인민을 나라의 근본으로 여기고 인민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하고 인민은 령도자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며 애국의 승결과 발걸음을 함께 하는 세상에 전무후무한 조선의 일심단결이다.

위대한 령도와 무한한 총정이 하나로 융합되어 그 무엇으로도 건드릴 수 없는 불가항력적으로 분출하는 일심단결은 공화국의 최강의 힘이고 전진과 승리의 위력찬 추진력이며 불패성의 원천으로 되고 있다.

새로운 승리를 위한 령정에서 이민위천, 자력갱생과 함께 일심단결의 송고한 리념을 다시금 깊이 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송고한 뜻은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뜨겁게 격동시키고 있으며 자력부강, 자력영의 길로 힘차게 고무추동하고 있다.

공화국은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력사의 온갖 시련과 도전을 박차며 사회주의건설의 시간표대로 새로운 승리의 길을 따라 확신있게, 즐겁게 나아가고 있다.

본사기자 리 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과업관철을 위한 투쟁에 온 나라 인민이 떨쳐나섰다. 누구나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경제발전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할 드높은 심심과 열의에 넘쳐있는 속에 과학기술전당을 찾은 과학자, 기술자들과 각계층 근로자들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

현시대는 과학기술의 시대이다. 공화국에서는 과학기술을 강국건설의 기반차로 내세우고 과학기술발전과 그 역할을 매우 중시하고 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과학기술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깊이 통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심단결과 불패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사회주의강국이라고 하시며 과학기술발전을 중차대한 과업으로 일관하게 내세우시

었다. 과학기술력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전략자이며 사회발전의 강력한 추동력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나라의 흥망성쇠는 과학기술발전에 달려있다고, 나라를 과학기술강국, 인제강국으로 만들자면 과학기술보급사업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며 평양의 속심에 과학기술전당을 건설하도록 하시었고 과학기술전당이 완공되었을 때에는 준공식장에 나오시어 이것이 바로 당의 구상이 구현된 전민학습의 대진당이며 최신과학기술보급사업이라고, 지식경제시대인 오늘 교육부에서 교육조건과 환경을 일신시키기 위한 사업을 즐기치게

말고나감으로써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앞당기는데 한 몫 단단히 할 인재들이 나라에 바다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었다. 몇해전 파일군을 현지지도 하시면서 파일군의 경험은 우리 일꾼들이 대중의 정신

력을 불리일키고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자강력을 높이 발휘한다면 그 어떤 불리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승전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있다고 하시면서 현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라고, 하늘을 쳐다보며 파일농사를 짓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시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을 사랑의 금방석에 앉혀주시고 크나

큰 믿음과 영예로 안겨주시는 그의 사랑과 현명한 령도는 온 나라에 과학기술증시기풍이 차남치게 하고 어디서나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놀라운 기적과 변혁을 창조해나가게 하는 원동력으로 되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전, 세계적인 명제품을 생산해낼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기술전당을 찾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발전을 현명하게 이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령도와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벌지는 과학기술열풍속에 공화국은 새로운 5개년 계획수행을 위한 전인민적진군을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힘있게 추동해나갈 것이며 그속에서 2021년의 이 한해도 값진 성과를 이룩하는 승리의 한해로 될 것이다.

임 관 옥

## 세차게 타벌지는 과학기술열풍



## 위대한 어머니당을 긍지높이 노래한 훌륭한 공연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를 경축하여 성황리에 진행된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가 지금 많은 사람들의 화제에 오르고 있다.

《정말 훌륭한 공연이다.》,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모두의 감정을 그대로 담아낸 공연이다.》, 《예술적 형상이 완벽하다.》... 거리에서나, 일터에서나 어딜 가나 이런 목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2시간 남짓한 공연은 제1부와 제2부로 진행되었다. 서곡 기악과 노래 《당을 노래하노라》로 시작된 공연의 제1부 《당은 우리 향토다》의 무대에는 력사적인 당대회들을 부강조국건설의 일대 분수령으로 빛내이며 주체위업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즐기치게 이 끌어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을 우러러 인민이 심장으로 터쳐부른 명곡들이 울렸다.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가 열린 60여년전 준엄한 해에 시대를 진감시켰던 불멸의 송가 《김일성원수께 드리는

노래》가 관현악과 노래로 울려 퍼지자 관람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으로 가슴을 불태웠다. 남성8중창과 합창 《우리는 빈터에서 시작하였네》, 금관합주와 남성합창 《천리마 달린다》는 관람자들에게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시고 전후복구건설과 사회주의건설에서 눈부신 기적을 창조하던 자랑스럽고 긍지높은 추억을 불리일키우었다. 변형하는 조국의 모습을 특색있는 예술적형상으로 보여주는 무반주합창 《벼가 울 하러 갈 때》와 그림자무용 《황금나무 등금나무 산에 심었소》, 런무 《대흥단 삼천리》, 《모란봉》, 《장고춤》은 관람자들에게 흥만한 정서와 끝없는 희열을 안겨 주었다.

공연의 제2부 《영원히 우리 당 따라》에서는 온 나라 인민이 어머니라 부르며 따르는 조선로동당의 품을 절절히 구가한 학생소년들의 축하시 《어머니 우리 당을 노래해요》, 아동합창과 혼성대

합창 《세상에 부럼없어라》 등이 울라 장내를 뜨겁게 울 렸다. 《당에 드리는 송가》, 《어머니》, 《어머니생각》, 《당이어 나의 어머니시여》를 비롯한 찬가들은 다정한 손길로 이 땅의 천만자식을 어엿이 키워 내세워주는 어머니당에 대한 인민의 다할 없는 감사와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를 절절한 열망을 분출 시킨것으로 하여 관람자들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진두에 높이 모시고 사회주의건설의 승리적전진을 다그쳐나가는 인민의 강용한 기상을 보여주는 타로춤 《사회주의전진가》, 피아노 2중주와 관현악과 합창 《대를 이어 충성을 다하렵니다》 등의 종곡들도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조선로동당의 령도를 일심전력으로 받들어갈 철석의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관현악과 합창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종곡 관현악과 합창과 무용 《김정은장군께

영광을》로 끝났다. 평양326전선종합공장 로동자 리성진은 《공연을 보고 흥분을 금할 수 없었다. 어머니당에 대한 우리 로동계급의 고마움의 마음, 어머니당을 끝까지 따를 총정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낸 결이다.》고 자기의 심정을 토로 하였다. 김원균명칭 평양음악대학의 김은희교원도 《우리 예술의 발전모를 보여주는 공연이다. 성악과 기악, 무용과 집단체조가 우리 식의 3차원다매체, 특색있는 조명, 수직배경대와 립체적으로 조화되어 황홀한 예술의 세계를 펼쳐놓았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경축 대공연 《당을 노래하노라》는 관람자들에게 어머니당에 대한 다할없는 감사의 정을 다시금 가슴깊이 새겨주었으며 당대회가 제시한 투쟁목표와 과업을 끝까지 관철해 나갈 불타는 결의를 더욱 굳게 해주었다.

본사기자 리 절 민





# 사랑의 공전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 주제 102(2013)년 10월 김정숙평양방직공장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자신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뜻대로 공장합숙을 잘 꾸려 주겠다고 하시면서 험한 길을 앞장서 헤치시며 합숙부지를 돌아보시고 합숙을 최단기간에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당한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친어머니의 그 사랑, 그 은정

에 떠받들려 합숙은 18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노동자들의 궁전으로 훌륭히 일떠서게 되었다. 그 후 새로 건설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을 찾으신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정말 멋있다고, 먼지만 날리던 곳이 천지개벽되었다고 대만족을 표시하시었다.



2018년 촬영

◇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 매 층의 중앙홀마다에는 대형액정텔레비전과 특화기, 화면반주음악기 등이 일식으로 갖추어져 있다. 내부구조가 합리적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조건이 구색이 맞게 갖추어진 침실들은 고급살림집을 연상시킨다. 합숙생들이 여가시간에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십대의 컴퓨터

가 설치된 전자도서관과 수많은 도서들이 가득한 일반 도서관이 있으며 식당과 목욕탕, 미용실, 세탁소, 상점 등을 비롯한 편의시설들과 로리시설장이 훌륭히 꾸려져 있다. 참으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은 경에 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 태어난 노동자들을 위한 사랑의 궁전, 행복의 집이고 정다운 보금자리이다. 본사기자 김혜성

## 인민의 꿈과 리상을 설계에 담아

일마진 백두산 건축연구원을 찾은 우리는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높이는 심장마다에 받아안고 특색있는 설계도안들을 창작하기 위해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는 이 곳 건축가, 설계가, 연구사들의 불같은 열의를 느낄 수 있었다. 사회주의 조국의 위대한 레일을 그 리미가 구는 미술가, 원에사라는 승고한 자각을 안고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진 종합적인 건축 창작연구기지에서의 사색과 탐구의 나래를 펼쳐가는 이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귀이 겨울을 매지 못하였다. 이 곳 설계연구소의 최규범부실장은 위대한 장군님과 경에 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의 손길이 있었기에 백두산건축연구원이 그 어떤 대상설계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고 건축창조에서 나서는 과학기술문제를 성과적으로 해결하는 관록있는 건축 창작연구집단으로 자라날수 있었다고 말하였다. 그러면서 그는 연구원의 건축가, 설계가들은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밝혀준대로 굴지의 유색건축광물생산지

인민적지구를 세상에 없는 광산도시로 일떠세우기 위한 건설형성안을 비롯하여 말저진 설계창작과제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성할 드높은 열의를 안고 창작전투에 진입하였다고 말하였다. 이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설계도면에 찍는 점 하나, 긋는 선 하나에도 로동당 시대의 사회주의문명, 인민의 꿈과 리상을 그대로 담을 줄 아는 애국적인 미술가, 창작가로 살려는 불타는 열정을 느낄 수 있었다. 백두산건축연구원의 견제 연구소에서도 건설부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문제를 적극 해결하기 위한 연구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다. 설계연구소의 연구사들은 지난 시기 국내산 색칠에 대한 색미장제도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석고와 세멘트를 가지고 천연돌문양장식 타일을 만들어 여러 건설대상물의 외벽에 도입한것을 비롯하여 마감재류, 난연재, 보온재연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곳에서 만난 정명호설계원은 이번 당대회에서 건설이 전례없는 속도로 진척되고있는 현실적요구에 맞게 건축공업을 더욱 발전시킬데 대한 과업이 제시되었다고 하면서 색칠장재료의 국산화를 더욱 완성하며 저품위석고에 의한 분말형건축메우제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켜나가는것을 비롯하여 건축물의 면모를 결정하는 마감재를 국내생산으로 충족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더욱 기세차게 진행해나갈 결심을 피력하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관철하기 위해 분발하고있는 이 곳 연구원의 건축가, 설계가, 연구사들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인민의 리상과 꿈이 현실로 펼쳐질 눈부신 레일을 그 러보았다. 본사기자 김철



## 자랑 많은 우표수집가가정

김일성종합대학 수석부 교원 리광선의 가정은 자랑 많은 우표수집가가정이다. 교수준비로 바쁜 속에서도 리광선교원은 우표수집을 비롯해서 여러 경로를 통하여 새해의 우표들을 수집하였다. 지난 30여년간 그는 절세위인들의 영상사진문헌을 모신 다양한 주제

의 우표들과 함께 역사, 과학, 문화, 풍습, 민속음식 등을 반영한 4500여종의 각종 우표들을 수집하였다. 수집한 우표들을 가지고 여러가지 주제의 작품을 만들어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우표전시회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리광선교원은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문화교류추진대회에도 참가하여 이목을 끌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수집한 우표들을 보면서 자란 그의 아들딸들도 정열적인 우표수집가들이다. 지금까지

리광선교원의 딸이 수집한 각종 우표는 근 3000종에 달한다. 대학생인 그의 아들도 아버지와 누나의 뒤를 이어 우표수집에 적극적이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경축 조선우표전람회에 리광선교원과 그의 딸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우리의 3대전략자산》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였다. 리광선교원은 조선우표에 호가동맹의 회원이다. 수집한 우표들을 한장한장 볼 때마다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긍지높이 안아보기도 하고 학생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 줄 결의를 다짐한다는 리광선교원의 말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리광선교원의 딸이 수집한 각종 우표는 근 3000종에 달한다. 대학생인 그의 아들도 아버지와 누나의 뒤를 이어 우표수집에 적극적이다. 지난해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창건 75돐경축 조선우표전람회에 리광선교원과 그의 딸은 《당기여 영원히 그대와 함께》, 《우리의 3대전략자산》이라는 주제로 작품을 출품하였다. 리광선교원은 조선우표에 호가동맹의 회원이다. 수집한 우표들을 한장한장 볼 때마다 비약하는 조국의 모습을 긍지높이 안아보기도 하고 학생들의 가슴속에 애국의 마음을 더욱 깊이 심어 줄 결의를 다짐한다는 리광선교원의 말이다. 본사기자 리경월

## 우리 고향, 우리 품을

### 맛 좋고 영양가 높은 《대하》 식료품

우하대성식료공장에서 만드는 《대하》상표를 단 식료품들은 사람속에 잘 알려졌었다. 특히 여러가지 고기가공품들과 각종 음료제품들은 평양1백화점을 비롯한 시안의 상업망들에서 널리 판매되고있는데 그 맛이 독특하고 질이 높다. 우하대성식료공장에서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료품을 생산하기 위한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바로세우고 과학기술과 생산을 밀착시켜 식료품의 품종과 가치수를 훨씬 높여왔다. 고기가공품들만 보더라도 햄, 팔파자 등 그 가지수가 적지 않다. 그중에서도 메기찌제는 맛 좋고 영양가 높은 식품으로 인기를 끌고있다. 파자찌찌제 우유파자, 꿀향파자, 살구씨파자를 비롯하여 수십가지나 된다. 우하대성식료공장에서 상표도안, 설계개발, 설비현대화를 비롯한 모든것을 자체의 힘과 기술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있다. 본사기자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것이 북의 국가시책이다》

남조선언론들이 인민의 참세상인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대해 널리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 《자주시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는것이 북의 국가시책이다. 북은 경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복무시키는 관점으로 대한다. 이는 최근에 보이는 모습이 아니라 상당히 오래된 전통이다.》라고 하면서 인민의 존엄과 이익을 최우선, 절대시

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시책에 대해 전하였다. 그러면서 북의 체제는 물론 경제도 철저히 국민의 존엄과 이익,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하여 복무한다. 국가의 모든 시책은 국민중심의 철학에서 나온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언론 《통일뉴스》도 김일성주석님께서 해방직후 강철이 아무리 귀중해도 그것을 우리 노동자들의 생명

과를 바꿀수 없다고 하시면서 일제가 조선을 강점한 후 노동자들을 무참히 희생시키면 성진대강소(당시)에 있던 원천로를 흔적도 없이 폭파해버리도록 하신 력사적사실에 대해 언급하면서 인민의 리익과 생명안전을 첫자리에 놓고있는 공화국의 인민중시 정책에 대해 상세히 보도하였다. 본사기자

지금 공화국인민들 누구나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투쟁에 매진할 의지로 가슴을 끓이고 있다. 과학기술발전을 촉진시켜 자력부강, 자력번영의 활로를 확실히 열어나갈데 대한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사상에 접하고 여기에 모든것을 바쳐갈 애국의 열의에 넘쳐있는 사람들과는 한 과학자도 있다. 그가 바로 평양향료공장 향료연구소 소장 최동광선생이다.

### 어제날의 맨발소년이...

공훈과학자, 후보원사, 교수, 박사... 인간이라면, 특히 과학자라면 누구나 부러워할 경지에 올라선 그를 보며 기자는 감탄하지 않을수 없었다. 《모두 그렇게들 얘기합니다.》 새해에 들어와 일흔살이 된다는 최동광선생이 고심어린 탐구와 노력의 흔적이런 듯 회이던 머리칼을 쓸어 넘기며 하는 말이였다. 1951년 일본의 어느 한 농촌마을에서 태어났을 당시 그의 아버지는 대학생이었고 어머니는 농사꾼이었다고 한다. 대학생과 농사꾼,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늘땅같은 차이에선 사연이 있었다. 뛰어난 머리와 향학열을 가진 아버지를 대학공부시키기 위해 어머니는 남의 집 소작살이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안되었던것이다. 아버지와 그의 3남매는 늘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다. 《어린시절에 대한 추억이라고 한다면 신발이 없어 늘 맨발로 다녔던 생각, 비가 온 다음날이면 참밭에 들어가 새로 들은 참대순을 잘라던 생각이 먼저 떠오르군 합니다.》 제일 기본 때는 형님과 함께

## 《통일신보》가 만난 사람들 <<< 천연향료연구에 한생을 바쳐가는 과학자 >>>

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과 매일 한바탕에 앉아서 기쁨속에 마주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왔다. 아버지는 그토록 소망했던 김일성종합대학 교원으로, 어머니는 인민반장으로 사업했고 그들 3형제는 대학생으로 자라났다. 형제중에서도 남달리 공부를 잘하였던 최동광선생은 김일성종합대학 화학부에 입학하였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학문인 화학을 전공하자, 화학

### 천연향료 - 청송향

활용하려는 학자들의 연구는 오래전부터 진행되어왔으며 오늘날에는 향료공업이라는 독자적인 분야를 이루고 발전하고있다. 당시 세계의 향료업계는 천연향료보다는 합성향료를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있었다. (조선사람의 정서와 미감에 맞고 건강에 유익한 우리식의 천연향료를 연구하자.) 이런 결심과 흥분을 안고 향료연구의 길에 들어섰지만 정작 그 세계는 쉽게 자리를 내주지 않았다. 파고들면 들수록 미지의 세계였다. 탐구의 낮과 밤은 계속되었다. 천연향료연구에 대한 국가적관심속에 강력한 연구진이 무어졌고 최동광선생은 향료연구실 실장으로, 평양천연향료연구소 소장으로 사업하게 되었다. 이 날날 그가 연구한 해당 화절대유체 조방 방법은 1989년 국제청년발명 및 새

기술향료연구회에서 금메달을 받았다. 1993년 어느 일요일, 장기에 호가이기도 한 최동광선생은 전쟁로병들과 함께 장기를 두는 과업을 새 연구사업에 대한 실마리를 잡게 되었다. 그들속에는 전쟁시기 군의로 복무한 아버지도 있었는데 그들의 말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소나무수림속에서 수출한 환자들은 다 살아났다는것이였다. 최동광선생은 흥분을 금할수 없었다. 합성향료들의 향기가 아무리 좋아도 천연향료가 가지는 건강보호효과를 기대할수 없는것이다. 우리 민족과 같은 인연을 맺어온 소나무를 주인으로 하는 천연향료를 개발하려는 그의 노력은 몇해후 청송향을 만들어내게 하였다. 세계향료업계는 새 세기에 들어와서야 천연향료개발에 나서 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세계의 이름있는 대학, 연구소에서는 최동광선생이 개발한 청송향에 대한 분석 실험을 진행하고 일치하게 천연향료의 우수성을 인정하였다. 조선에서 비롯되고있는 천연향료개발성과에 감동된 유엔의 어느 국제기구는 향료분석실험을 비롯한 많은 연구실험들과 생산실험들을 향료연구소에 기증하였다. 청송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특허로 등록되었고 중국에서 진행된 국제특허전람회에서도 금상을 수여받았다. 청송향뿐아니라 송침유를 비롯한 최동광선생이 연구한 천연향료제품들은 2018년 평양국제특수생산물 및 가구전람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다. 사용자들은 청송향정유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방안과 사무실, 위생실 등에 일체 잡냄새가 없어지고 공기속에 음이온이 생겨나 마치 소나무 숲속에 들어온것 같다고 이야기하고있다. 여러가지 기능성청송향

비누들은 여드름제거, 주근깨제거, 표백기능을 나타낼뿐아니라 간, 콩팥을 비롯한 인체의 장기질병치료에도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최동광선생에게는 또 다른 부름이 있다. 아버지과 딸이 다같이 향료연구의 길에서 박사학위를 받은것이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김일성종합대학을 졸업하고 30대에 박사가 된 그의 딸 최영순은 현재 향료연구소에서 향수 및 나노재료연구실실장으로 사업하고있다. 김일성종합대학 경제학부를 졸업한 아들 최광수선생도 석사학위를 받고 향료관련부서에서 사업하고있다. 최동광선생의 형인 최형웅선생은 조국의 품에서 로력영웅으로 자라났으며 지금은 신미리애국렬사릉에서 영생하는 삶을 누리고있다. 《사회주의조국의 품에 안기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우리 가족을 생각할수 없습니다. 그 사랑에 보답하고자 온 가족이 향료연구에 모든것을 바쳐가기도 했습니다.》-가사처럼 과학을 사랑하라!

과학기술성과들, 발명중서, 창의고안중서를 비롯하여 최동광선생이 받은 증서만도 50여권이 넘으며 도서 《화학품원료편람》을 비롯하여 여러권의 도서들도 집필하였다는 사실은 그가 이룩한 연구성과를 잘 알수 있게 한다. 현재 한덕수평양공업대학 교원을 겸직하고있는 그는 후대교육사업에도 전심전력하고있다. 이것은 최동광선생에게 있어서 인생의 좌우명으로 되고있다. 《경에 하는 원수님께서 누구나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앞세우실것을 자기 가사처럼 여겨야 한다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가사는 누구나 가장 소중히 여기고 모든것을 다해 가꾸어가는 행복의 밑천에 관한 문제이기때문에 집안일은 중요하리라는 차이를 차지하고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도 과학기술은 그런 생활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우기 나라 과학자가 아닙니까? 우리 식의 천연향료를 더 많이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가사처럼 여기고 여기에 한생을 바쳐갈 결심입니다.》 최동광선생과 같은 과학자들이 많아 이해에도 조국땅에 우리의 향기, 애국의 향기가 더욱 짙게 풍길것이다. 본사기자 김춘경



천연향료연구를 심화시키는 최동광선생 (가운데)

통일산의 역사유적을 찾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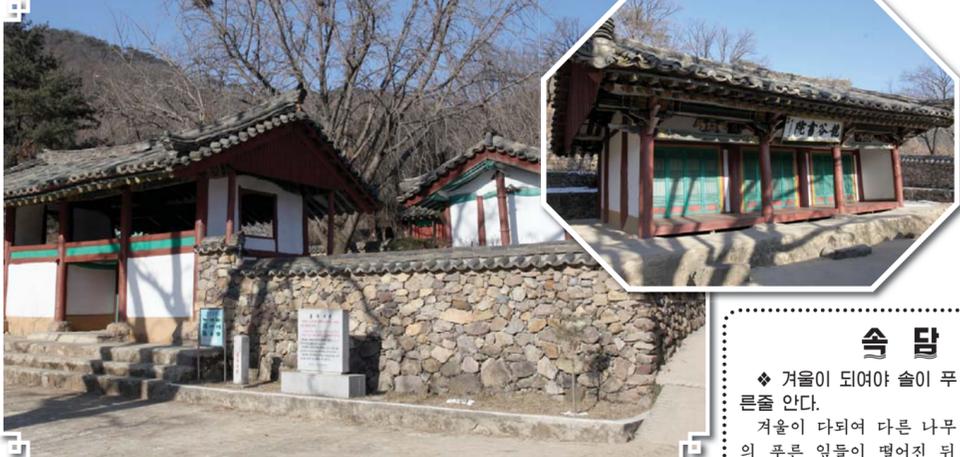
통곡서원

어찌 보면 꿈틀거리며 솟구쳐오르는 통의 모습인듯 하늘높이 치솟은 산봉우리

문화유적들로 하여 더욱 유명하다. 그 유적들속에는 통곡서원도 있다.

방울 차린데 그 연원을 두고 있다고 한다. 동행한 리일심연구소(사회과학연구소)는 통곡산의 골짜기에 자리잡고있는 서원이라는 뜻에서 이름지어진 통곡서원이 평양지방출신 유학자 돈암 선우협을 추모하며 그가 살던 집에 세운 사립교육기관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

산기슭의 경사진 지형을 그대로 리용하여 앞에서 뒤로 가면서 조금씩 높아진 땅위에 건물들을 차례로 지은 통곡서원은 여러채의 건물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기능회복치료에 열정을 바쳐 김만유병원 기능회복치료과의 의료인들은 환자치료와 의과학연구소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가고있다.

는 의과학연구소과들을 환자치료에 도입하였다. 그리고 모든것이 부족한속에서도 자체의 힘으로 감당치료를 현대적으로 꾸리고 시중호의 감당을 환자치료에 리용하여 좋은 효과를 보고있다.

발진시켜 인민들에게 더 좋은 의료상해력을 제공할데 대한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의 과업을 높은 치료 및 의과학연구소과로 관철할 이들의 불같은 열의는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있다.

하나의 연구성과를 내놓아도 립상실천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수 있도록 창조적지혜와 열정을 합쳐가는 이들의 열굴마다에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긍지가 한껏 넘쳐나고있다.

사화

돌탑에 깃든 녀 (3)

글 장성철, 그림 김윤일

더우기는 란리통에 젊은작인들은 왜놈들과 싸우겠다고 모두 정방산성으로 들어가고 남는것이란 녀는 하인 딸과 아내들뿐이라 물에 빠진 늑 지루배기라도 잡아야 한다 했거늘 류자림의 처지에서 보면 석철복은 그야말로 석탈가물에게 내리는 단비와 같은 존재였다.

먹은 난알이 이렇게 빛으로 되었던것이다. 석철복은 쓴입을 다셨다. 이럴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아예 싹 손을 털고 나갔어야 했을걸 하는 후회가 풀어올랐다.

매달렸다. 「가지 말아요. 싸움이 끝난 다음 피죽을 우려먹으면 서라도 빛을 잡지요. 예?」 석철복은 안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다.

말을 하였다. 「이왕지사 이렇게 됐으니 입자 내 시키는대로 하게나. 이제 날이 밝으면 저 진물이에 감춰놓은 식량을 실어오라구. 지금 이 왜것들이 식량이 없어 썰매에는 순순히 실어만 오면 값을 후하게 주겠다누만. 식량을 실어오지 않으면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본전을 비롯하여 모든 건물들이 중세시기의 우수한 건축술을 엿볼수 있게 하였다. 이곳 판리원의 말에 의하면 서원에서는 학생들을 가르치는것 외에도 당대의 이름있는 유학자들의 위패를 놓고 제사를 지냈다고 한다.

속담과 뜻

◆ 겨울이 되어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되어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무슨 일이나 다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급하다 하여 마구 억지로 뛰어들어 할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겨울이 되어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되어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무슨 일이나 다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급하다 하여 마구 억지로 뛰어들어 할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겨울이 되어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되어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무슨 일이나 다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급하다 하여 마구 억지로 뛰어들어 할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겨울이 되어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되어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무슨 일이나 다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급하다 하여 마구 억지로 뛰어들어 할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겨울이 되어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되어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 겨울이 지나지 않고 봄이 오랴. 무슨 일이나 다 일정한 차례가 있으니 급하다 하여 마구 억지로 뛰어들어 할수 없다는것을 이르는 말.

◆ 겨울이 되어야 솔이 푸른줄 안다. 겨울이 다되어 다른 나무의 푸른 잎들이 떨어진 뒤에야 소나무가 푸르싱싱하다는것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는 뜻으로 사람은 어려운 때를 당해보아야 어떤 사람인가 하는 진짜 속내를 알수 있다는것을 비유하는 말.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체육인들

세계의 하늘가에 공화국기를 날린 미더운 체육인들 가운데는 백발백중의 명사수로 이름을 떨친 인민체육인 리호준도 있다.

생황과 라각

생황은 여러개의 관을 묶어 만든 죽관악기이다. 문헌자료에 세나라시기인 7세기초에 고구려에서 생황을 사용하였는데 주로 궁중음악이나 직업음악가들속에서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라각은 원시사회부터 사용되었으나 주로 로동생활에서 단순한 신호악기로 쓰였다. 라각은 단순한 몇개의 배음밖에 낼수 없으며 다만 몇개 음을 지속하여 길게 불 때름이다.



《한》은 형용사 《하다》의 줄기 《하》에 토 《ㄴ》이 붙은 형태로 《큰, 많은》을 뜻한다.

《하늬바람》은 큰바람이라는 뜻에서 《한의바람》으로부터 이루어진 말이다.

골두부랑

골두부랑은 굴에 두부와 여러가지 음식감을 두고 만든 음식이다.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음식감으로 굴(간갯) 150g 일 때 두부 100g, 버섯 50g

다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파토막과 버섯을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간장을 부어 간을 맞춘 다음 굴,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다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파토막과 버섯을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간장을 부어 간을 맞춘 다음 굴,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다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파토막과 버섯을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간장을 부어 간을 맞춘 다음 굴,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다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파토막과 버섯을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간장을 부어 간을 맞춘 다음 굴,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

다 남비에 기름을 두르고 파토막과 버섯을 볶다가 물을 부어 끓인다. 국물이 끓으면 간장을 부어 간을 맞춘 다음 굴, 두부를 넣고 한소끔 끓인다.